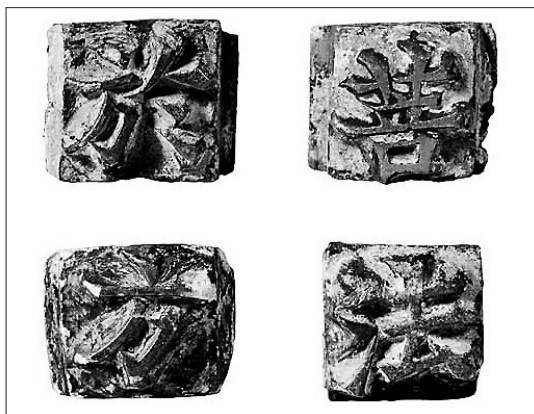


학술·문화재
2015 결산

불교 학계와 문화재계 구습 철폐, 새 트렌드 '눈길'



불교학계가 도입 중인 JAMS시스템



최고화자 논란을 불러온 '중도가자'



영산회상도 환수 공개식



합천 해인사 대장경 조사 당시 모습



초중고개편교과사위원회 회의 장면

2015년 한해는 그동안 불교학계와 문화재계의 답습되어 오던 구태를 벗어던진 변화의 한해였다. 특히 학계 내의 관행을 철폐하라는 목소리와 이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잇따른 만큼 다가오는 새해의 변화가 기대된다.

△불교학계도 인터넷 시대, JAMS시스템 도입
먼저 올해 초 불교학계의 관심은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도입으로 몰렸다.

'잼스'는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2013년부터 학회 운영 전산화에 도입한 시스템으로 학회 홈페이지부터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일정, 회원 관리 등을 통합한 것이다. 논문투고 및 심사, 제작출판,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쪽으로의 학술정보 제공까지의 학회 행정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와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며 학술지 또한 인터넷을 통해 발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학회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최고 화자 중도가자 발견, 위품판정으로 끝맺어
이어 2월에는 '직지심체요절(1377)'의 활자보다 138년 이상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활자 '중도가자'가 진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3월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남명전화상승중도가'가 금속활자본임을 들며 기존 최고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위상이 흔들리기도 했다.

논쟁이 심화되자 국립과학사수연구원이 10월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여기에서는 고인쇄박물관이 그

동안 중도가자를 소유한 다보성박물관과 출처가 같은 곳에서 구입해 조사를 의뢰한 중도가자 7개가 위품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진위논란으로 중도가자에 대한 가치가 절하된 상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불교학술지 대거탈락 파문
한국연구재단이 7월 3일 학술지 평가 결과를 내놓으며 불교학계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불교계 학술지 8개 중 5개가 탈락 및 하락한 것이다. 재심 등을 요청해 한국정보학회의 정보학연구가 등재지로 승격했지만 학계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 기준에서 '학회는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3분의 1 미만일 것'과 '대학부설연구소는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2분의 1 미만으로 할 것'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인문학 분야와는 달리 불교학계의 특성이 무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불교학계 관행 지적, 자성의 목소리 줄어
이런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한국불교연구회가 발간하는 <문학/사학/철학> 겨울호에서 불교학계의 현안 문제를 현실적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한 때에 학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 결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조 교수는 학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학회가 지나치게 임원진 위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 회장의 독선으로 학회가 분열되곤 했을 지적했다. 또 학회지의 전자저널 대체, 학술발표 자료집 유료화, 뒤풀이나 식사비용 각출, 과도한 발표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도 11월 문사철에 '불교학 관련 논문심사 유감'이란 글을 통해 "논문심사가 '조언'이라는 형식을 빌리고는 있지만 때로 심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훈계하듯 지시하기도 한다"고 비판했으며 장재진 동명대 교수도 심사자의 자격과 논문 투고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터넷 시대 맞춰 변화 움직임 거세
논문심사 관행 철폐 내부 목소리도
문화재 관련법 정비는 새해 과제로 남아

△대학교조개혁평가 인문학 소외
교육부의 2015년 9월 대학교조개혁평가에서 종합대학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퍼스나 최우수 등급인 A평점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위덕대가 우수 등급인 B등급을 받아 불교종정학과의 위상을 떨쳤다. 하지만 평가가 취업률 등에 기반해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예고한 상태다.

△도덕·역사 등 교과서 내 불교기술 바로잡아
7월에는 불교계가 추진하는 초·중·고교 교과서의 불교 관련 서술 바로잡기가 첫 결실을 맺었다. 교육부의 2015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서양 윤리에 비해 소외받았던 동양윤리의 강화와 함께 세부내용에서 불교 관련 내용이 대폭 보강됐다.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의 제안이 다수 반영됐기 때문이다. 연구위는 교과서 불교서술의 오류를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에 개정방안 담은 기안서 발송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성보 보존관리 강화...성보박물관협회 출범
올해는 전국 성보박물관 간의 교류를 통한 역량 결집 및 운영 활성화를 꾀한 '성보박물관협회'가 출범한 한해이기도 했다. 성보박물관협회는 그동안 박물관 간의 교류 및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필요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는 8월31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 확정 및 사업 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성보박물관협회는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육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건전한 성보박물관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사업, 성보박물관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에서 성보박물관 향유합승 비용인 5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불교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제 보판 '대장경' 국보지정범위 논란
또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유산인 대장경판의 수를 둔 논란도 불거졌다. 대장경판이 가진 '상징성'에 일제강점기에 보각판 경판을 포함하는 지가 주된 논란거리였다. 8만 1352판 전체를 국보로 유지하자는 입장파와 보각판과 중복판은 제외, 또는 새로 국보지정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학계와는 달리 해인사 측은 대장경판을 신앙의 대상의 관점으로 보며 현재 원판과 보각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지속 연구와 공론의 장을 내년에도 열어야 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재 환수, 정·관·불교계 힘모아
지난해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에 힘을 모았던 조계종과 문화재정이 올해는 협력을 통해 미국 경매에 출품된 도난 불화인 '동악당대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을 환수했다. 7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환수공개식에서는 향후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11월 부산 범어사도 스위스 경매장에서 도난돼 행방을 찾지 못했던 칠성도를 환수했다.

△문화재 은닉 사범, 공소시효로 집행유예
2014년 성보를 비롯해 문화재 수백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범박물관장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영은사 '영산회상도'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권 씨가 물건을 사들였을 2012년 당시 장물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재 전문가들은 도난문화재의 취득과 장물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형을 엄중히 하고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해에는 문화재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도 중국불교에 큰 영향 미쳤다”

한국불교사학, 12월 12일 집중세미나서 한국전법승 조명

한국불교는 고대 인도와 중국의 전법승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일반적으로 수용만 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불교의 전래·수용·공인·유통의 과정을 거쳤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과 반도와 열도에서 발효 숙성시킨 불교를 중국과 일본에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고승들이 활약했다.

한국불교사학연구소(소장 고영섭)가 12월 12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12차 집중세미나에서는 정중 무상, 구화 지장, 상산 혜각, 고려 제관 등의 활약이 조

명됐다. 먼저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구화 지장(九華地藏) 선사'에 대해 "신라왕자 출신인 그가 안사의난으로 황폐해진 백성들에게 전한 구제사상과 행화는 이 시대 요청되는 모범적인 보살행"이라며 "지장사상은 중국인들의 '효' 관과 맞닿아 새로운 의미로 다가갔다"고 평했다. 고 교수는 "그 행화와 덕화가 오늘날에도 이어지

는 것은 그의 삶이 생전의 보살행과 죽어서 보여준 이타행이 지장신앙의 구제사상과 온전히 일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구 국민대 외래교수는 '상산 혜각'에 대해 "입당 후 10년 동안 진주, 형주 등 하북성 일대를 순례하며 두타행을 닦았을 스님은 신화와 다른 일각사상으로 법등을 밝혔다. 이 일각 사상은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에 자세히 설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본 혜각 스님은 입당 전부터 원효 스님의 저술을 공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사하면 칠천사 등에서 774년 입적할 때까지 일각의 지혜를 전했으며 783년 그 행적을 다룬 탑비가 칠천사에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고려 제관이 중국불교에 끼친 영향'을 통해 고려시대 오월과 의 불교 교류를 조망했다. 최 연구교수는 "당시 법안 종파 천태종의 긴밀한 관계가 수립됐으며, 그 중심에 덕소, 연수, 의적이란 고려승이 있었다. 지역과 국가로는 향주와 천태산, 사범지역, 그리고 고려와의 긴밀한 관계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교수는 "의봉은 의적 문하에서 천태종을 배웠고, 전교원에서 지례와 준식을 배웠다. 천태종 역대조사로 추증된 점에서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제관은 뛰어난 천태학자로 고려 광종의 사신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영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기간 강의로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곧게 지행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협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총립 중앙승가강원 학인 모집 안내

종단의 중진 교역자 및 인재양성, 미래교육 불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종도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 과	모집인원	교과과목	교학기간	수강시간	전형방법
대교과	00명	화엄경	1년(2학기)	매주(월,화)	서류심사
사교과	00명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1년(2학기)	매주(수,목)	

2 전형 및 개강 일정

구 분	일 자	구비서류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16년 2월중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 ※입학원서:중앙홈페이지(다운로드)	사진 2매 (3×4cm)
대교과 개강	2016년 3월중		매주 월, 화요일
사교과 개강	2016년 3월중		매주 수, 목요일

3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대교과	① 중앙승가강원, 선암사전통강원, 보덕사비구강원 사교과정 이상 수료자 ② 선암사 전통강원에 준하는 승가대학 및 전통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③ 동방불교대학(승가, 불교) 졸업자로서 대덕법계 이상 수료자 ④ 정규불교대학원 불교(승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수여자

4 특전사항

- ① 신심 및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 ② 월 1회 초기불교 특강(사교/대교 공통)
- ③ 서예 지도 : 매주 수요일 저녁
- ④ 대교과 졸업자 - 차 상위 법계고시 응시 시 논문제출 면제

5 등록금 : 60만원 (1학기)

※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4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고지 예정입니다.

중앙승가강원장 헤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 산